

# 견학보고서

윤재호<sup>1</sup>

## 1. 개요

- 1) 기관명 : 아이치켄 심신장애자 코로니(Colony<sup>2</sup>)
- 2) 견학일시 : 2007년 6월 6일(수) 13:00 ~ 14:30
- 3) 견학단체 : 二木ゼミ生たち<sup>3</sup>
- 4) 홈페이지 : <http://www.pref.aichi.jp/hsc/>

## 2. 견학내용

二木ゼミ生たち와 같이 학기 1회 있는 기관방문에 함께 참여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이었고, 한국과 견학방법 다른 점을 살펴보고 역사가 있는 복지시설의 현황을 단편적으로나마 보고 왔다.

시설은 중증심신장애아동생활시설, 지적장애아동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단기생활시설, 중앙병원, 직업훈련시설, 장애아동학교, 발달장애연구소, 종합운영사무소, 병원지원과, 아이치발달장애자지원센터<sup>4</sup>로 구성되어 장애인에 대한 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견학은 시설에 대한 일반소개 및 직업훈련시설, 생활시설견학을 거쳐 중앙병원의 재활의학과 견학<sup>5</sup>을 가서 재활의학과 의 이학요법<sup>6</sup>, 작업요법, 언어청각요법, 시각장애훈련에 대한 견학과 더불어 이학요법사와의 강의를 통해 간단한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이외는 단순 시설견학을 실시함.

## 3. 결론

아이치심신장애자코로니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장애인 시설인 만큼 부지의 규모 면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법인형 복지시설<sup>7</sup>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니 똑 같다고 말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장애인들이 모여 생활하기에는 편리 할 수도 있으나, 비장애인들과 떨어진 생활거점은 곧

---

<sup>1</sup> 일본복지대학교 개호보험·복합체 연구생(Niki Ryu지도), [jehoyun@welfare.or.kr\(KOR\)](mailto:jehoyun@welfare.or.kr), [yun\\_jeho@yahoo.co.jp\(JPN\)](mailto:yun_jeho@yahoo.co.jp), [www.jehonara.com](http://www.jehonara.com)

<sup>2</sup> colony [명사]1 <사회>심신 장애자가 일정 지역에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치료, 훈련 따위를 받는 종합적인 사회 복지 시설. 2 <생물>한 지역을 어느 기간 동안 점유하는 종으로 된 생물의 집단. 3 <생물>=집락(集落). - 네이버사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은 일본 학생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sup>3</sup> Niki Ryu's seminar students

<sup>4</sup> <http://www.pref.aichi.jp/hsc/colonyoutline.html>

<sup>5</sup> Niki Ryu's seminar students는 주로 의료사회복지사를 희망하여 병원, 특히 재활의학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http://www.aichi-colony.jp/habili/habili.htm>)

<sup>6</sup> 동기부여를 통한 자연스러운 재활운동을 도모한다.

<sup>7</sup> 법인을 이루고 생활시설, 학교, 직업재활소 등을 함께 운영하는 기관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본다. 한국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많은 참여를 통하여 비장애인과의 접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기회가 있으나 이곳 자원봉사가 연간 약 3,853명<sup>8</sup>이 온다고 하니 하루 평균 1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한국의 자료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이 큰 규모에 하루 평균 10명의 자원봉사자는 규모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회의 접근 방법은 취업 및 그룹홈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sup>9</sup>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활하는 곳의 사회적 고립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든다.

일본의 많은 복지예산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역사를 갖고 있는 시설은 사회통합 시스템 문제에 대해 고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을 느낀다.

#### 4. 사진



10

<sup>8</sup> 2006년 코로니에 온 자원봉사자 수, 같은 사람이 2일 오면 2명으로 합산된 수치.(2007년 현재 1,500회)

<sup>9</sup> 정부에서 2005년부터 적극 장려하여 많은 인원들이 사회로 나갔다고 한다.

<sup>10</sup> 개인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인해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진은 촬영하지 않고 강의를 듣고 기록을 함.